

개방 가능한 클린룸 체인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폴리머로 체인, 케이블, 베어링 등을 제조하는 독일 기업 igus가 클린룸 체인, e스킨 플랫을 새롭게 개발했다. 기존의 주름 튜브형 디자인과 달리 케이블 윤곽에 맞게 커버를 입힌 것 같은 디자인으로 제품 개발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한다.

igus가 2016년부터 공략해 오고 있는 클린룸 체인의 초기 모델은 밀폐형 주름 튜브 e스킨으로 길이 조절이나 유지보수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체인 클린룸 담당자 Peter Mattonet은 “e스킨이 갖는 유지 보수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플랫형 클린룸으로 제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품 개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e스킨 플랫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e스킨 플랫은 ‘flat’의 의미 그대로 매우 낮은 설치 높이와 작은 곡률 반경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케이블을 수축 포장하는 시중 플랫 케이블과 달리 폴리머로 압출 성형한 챔버에 케이블을 삽입해 사용한다. 이는 각 케이블 교체를 용이하게 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도 직결된다.

한국이구스 정준희 과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e스킨 플랫의 아이디어를 본사에 제안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 시장이 가진 경쟁력 또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본사 반도체 산업 담당자도 현재 한국에서 파견 근무 중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라 할 만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죠.”라며 시장 공략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사진 캡션>

e스킨 플랫폼 샘플 회의를 갖고 있는 정준희 과장과 Peter Mattonet(igus 클린룸 산업 HQ 담당자).

담당 연락처 :

길보라 과장
한국이구스

인천 남동구 함박외로 377번길 109
전화: 032 821 2925
팩스: 032 821 2913
bgil@igus.kr
<http://www.igus.kr>

한국 이구스:

igus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5개 지사, 4,15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igus만의 특수한 엔지니어링 폴리머 소재를 기반으로 모션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e체인, 케이블, 베어링이 주요 품목입니다. 커스텀 솔루션 및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150평의 업계 최대 규모의 테스트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igus의 매출은 7억 4,800만 유로를 기록하였습니다.

igus, "Apiro", "chainflex", "CFRIP", "conprotect", "CTD", "drylin", "dry-tech", "dryspin", "easy chain", "e-chain", "e-chain systems", "e-ketten", "e-kettensysteme", "e-skin", "flizz", "ibow", "igear", "iglidur", "igubal", "kineKIT", "manus", "motion plastics", "pikchain", "plastics for longer life", "readychain", "readycable", "ReBel", "speedigus", "triflex", "roboLink", "xiros" 는 igus® GmbH 및 igus® Inc.의 등록 상표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